

'마음의병' 치료해준 장승과 솟대



글_ 이종호 과학저술가 mystery123@korea.com

우리 유산 중에는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로 과학성이 증명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정신적인 문화유산의 경우 실험으로 이를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풍수지리나 제사, 사주팔자나 부적, 일부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미신으로 여기기도 하는 장승이나 솟대 등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도깨비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을 과학성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존재가 인간의 믿음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수호신' 믿음으로 마을의 행복 빌어

우리 나라의 유산 중에서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가장 경원시당하고 푸대접을 받는 것은 아마도 장승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마을 입구나 길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장승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겼다. 특히 가난하고 무기력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매달린 미신적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인식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예외 없이 '이교도의 생활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기독교를 토착시키기 위해서는 장승을 꼭 배제해야 할 민속신앙으로 간주했다.

원시신앙이라는 자체가 '미신'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종교에서 장승을 미신으로 보고 배제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은 사물을 서양의 문화 잣대로 보는 데는 익숙하고 정작 우리의 문화전통에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치이기도 하다. 특히 서양의 인종·문화 우월주의와 일부 종교인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샤머니즘을 떨쳐버리고 부수어야 할 신앙대상으로만 격하시킬 때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철폐되어야 할 부끄러운 유산으로 매도되고 있는 부적, 장승, 솟대(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긴 장대나 돌기둥 위에 올려 놓은 것) 등 많은 문화유산이 현재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부단한 믿음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장승과 솟대 같은 것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나무로 만든 장승이나 솟대는 대체로 10~20년마다 다시 세운다. 우리 선조가 모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수천 년 동안(장승이나 솟대는 3천년 전부터 세워졌다고 추정) 계속 이를 만들어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유행 또는 무형으로 기대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다는 뜻이다. 믿음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

과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 유산 중에는 과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승이 과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물건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징표인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물건이라는 뜻도 된다.

원시신앙 아닌 3천년 이어온 전통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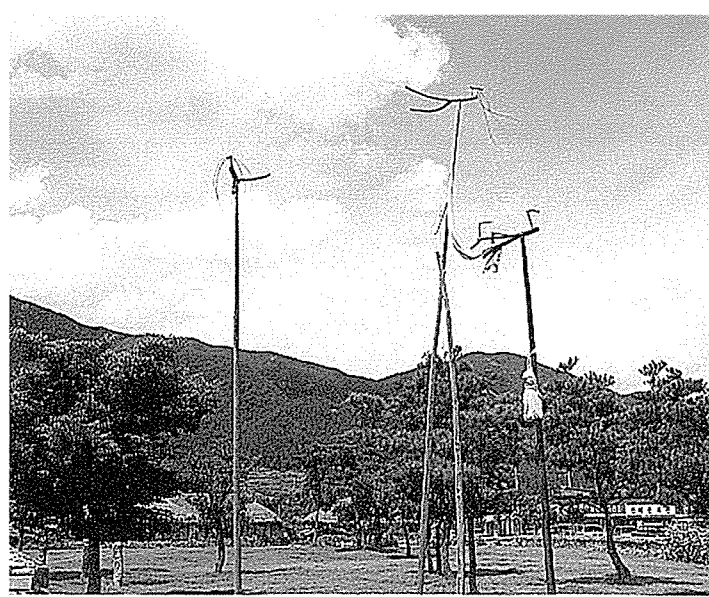
장승은 'Devil Post' 또는 '천하대장군'의 이름으로 외국인 사이에 가장 많이 선전된 한국 민속 유산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거의 모두 장승에 대해 듣거나 보았기 때문에 장승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승을 마을 수호신인 법수(법수)와 분류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모두 장승으로 통칭한다.

장승은 이정표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네 어귀나 길가에 세워진 사람 모양의 조각 형상물로 남녀 쌍을 이뤄 세워지는데 이는 각각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불린다. 동·서·남·

북·중앙에 다섯 장승이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승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경기·충청 지역에서는 '장승', 관서·관북지역에서는 '당승', 호남 지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남 지역에서는 '백수', 제주도에서는 '하르방'이다.

장승의 가장 큰 역할은 마을을 지키는 것이다. 돌림병이나 흉년을 가져오는 잡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흔히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웠다. 그러나 장승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영남 지방에서는 마을과 마을간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경계지표로 장승을 세웠고 지리산 실상사나 화양산 관룡사에서 절 입구에 장승을 세워 절을 지키게 했다. 고려시대에 비보사찰의 승려들은 국가가 부여한 사찰 영지에 대한 면세 혜택에 힘입어 그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했다. 이 때 장승은 산천 비보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계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긴 장대나 돌기둥 위에 올려 놓았던 '솃대'

표시하는 역할도 했다.

사람들은 풍수지리에 따라 땅기운이 약한 곳에 장승을 세우기도 했고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이정표로 장승을 세웠다. 마을 밖의 장승은 만남의 장소 표시로 안성맞춤이었다. 또 사람들은 장승이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 잉태를 가능케 해준다고 믿었다. 이와 반대로 여자들은 장승의 코나 눈 부위를 감아서 감초와 함께 삶아 낙태 비방약으로 먹기도 했다. 장승은 또 기도 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다.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과 길 떠난 자식의 성공, 풍년, 풍어, 건강 등을 빌었다. 환자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정성을 드렸고 노총각과 노처녀는 장승 앞에 음식을 놓고 소원성취를 기원했다.

대개 장승은 음력 정월 열나흘 날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팔도의 장승들은 거의 모두 같은 날 태어난 형제들이다. 원래 장승은 남녀의 성구별이 없었는데 후대에 부부상으로 바뀌었다. 장승을 남녀 쌍으로 세울 때는 길들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하거나 사이 좋게 나란히 서있게 했다. 장승을 부부로 만든 것도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의미가 크다. 장승 부부를 마주 보게 할 때는 대장군은 동쪽에, 여장군은 서쪽에 세운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객이 장승을 보고 방향을 알 수도 있었다.

장승은 대부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 부러린 두 눈, 푹 붙겨진 눈망울, 치켜올라간 눈썹, 몽툭한 코 등 장승이 이처럼 무섭고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 해를 끼치려는 잡귀들에 겁을 주어 내쫓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해학적이고 자애로워 보이기도 하며 전형적인 한국인 얼굴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모두가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㉞

